

보도자료 2009년 11월 4일(수)	녹색성장위원회	녹색기술과 (02-735-2154)
	교육과학기술부	거대과과학기술과(02-2100-6733)
	노동부	고용정책과(02-2110-7164)
'09.11.04(수)에 14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배 포	관계부처 공동

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

- 직접 녹색일자리 '13년까지 20만개 증가, 다양한 新녹색직업 부상
- 녹색고용영향평가 도입, 「녹색 사회적 기업」 300개 육성, 국가자격체계 녹색개편
- 핵심녹색인재양성에 1.1조원 투입, '13년까지 10만명 양성

- 녹색성장위원회,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11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「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: 녹색일자리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」를 발표할 예정이다.
- 향후 5년간 녹색일자리가 전산업의 평균적인 일자리 증가율(1.3%)보다 4배가량 빠른 속도(6.0%)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녹색일자리 규모가 81만개('08년 대비 20만개 증가)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 - 또한, 태양광설비시스템 개발자, LED생산관리자, 그린카 설계 개발자, 생태도시 개발기획자, 농업환경컨설턴트, 정밀농업전문가, 탄소거래중개인 등이 유망 녹색직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.
 - 이에, 녹색일자리 수요 증가 및 다양한 녹색직업 출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녹색인력(Green workforce)의 체계적 양성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.

□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①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②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③핵심녹색인재 양성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
- ① 먼저, '녹색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'해 나갈 계획이다.
 - 「녹색인력수급전망」과 「고용영향평가제도」를 도입하여 녹색 산업분야에서 인력의 과부족 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, 부처간, 중앙-지방, 민-관, 노-사 등의 녹색일자리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.
 - * 예시: 신재생에너지, 녹색금융분야 등에서 산업별 협의체와 협약 체결
 - 녹색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온라인 워크넷(work.go.kr)의 일자리 정보에 녹색일직리를 표시하여 구직자들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하며,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「녹색사회적기업」 300개를 육성(09년:40개) 하고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.
 - * 예시: 숲생태관리인, 도시녹지관리원 등
 - 기업의 작업장을 녹색근무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대 화학물질* 사업장을 3단계 관리체계(녹색사업장, 황색사업장, 적색사업장)로 구축하여 '녹색 사업장'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, 원격근무 등 에너지 절감형 근무형태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 고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.
 - * 톨루엔, 노말헥산, 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10대물질
- ② 아울러, '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'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추진된다.
 -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, LED·지능형전력망, 친환경 건축 등 분야별로 특화된

직업훈련센터 지원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한다.

- 또한, 자동차·철강·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화 진전에 따른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.
- 특히, 기업, 사업주단체, 대학 등이 녹색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(**Green skill alliance**)을 구성하여 녹색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설·장비비(3년간 최대 15억원), 전담인력 인건비(6년간 최대 1.2억원) 등을 우선 지원 한다.
-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(예: LED응용 조명시공기능사, 전기자동차 기사, 탄소배출권거래사 등)하고,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녹색화도 강화된다.

③ 녹색성장을 견인할 핵심인 '핵심녹색인재양성'을 위하여 '13년까지 1.1 조원을 투입하여 약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.

- 고급 핵심 녹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'12년까지 13개의 녹색 「전문대학원」을 지원하고, 녹색기술 관련 「특성화대학원」 선정·지원을 강화한다.
 - ※ 전문대학원 사례: 녹색에너지·융합소프트웨어·그린스쿨 등
 - ※ 특성화대학원 사례 : 환경부(기후변화), 국토부(해양에너지, 공간정보), 지경부(풍력·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) 등
-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, 세계적 수준의 녹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WCU (World Class University)사업 및 WCI(World Class Institute)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- 지역 녹색인재 공급을 위해 「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」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6개 광역권 내 19개 우수 지방대학을 녹색교육기

관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.

- ※ 예시: 신재생에너지, 친환경 부품소재, 물산업 등
- 또한, 녹색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녹색금융, 녹색경영,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서비스분야 전문인력도 양성을 강화한다.
- 아울러, 녹색기능 인력을 체계적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계고에 다양한 직업교육 트랙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, 마이스터고(21개)의 녹색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참고1 녹색성장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

☞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변화

- ① 기존 녹색직업의 고용 수요를 증가시켜 일자리 증가
- ② 기존 직업의 수행직무, 기술·지식 등을 변화
- ③ 녹색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
- ④ 비녹색산업의 규제·퇴출에 따른 기존 직업의 대체 또는 소멸

○ 일부 직업에서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변하지 않았으나 녹색산업 확대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

- 나노소재 연구개발자, 환경영향 평가사, 토양수질영향평가사, 농업환경 컨설턴트, 해양생물학자, 환경공학기술자, 산림보호원 등

○ 기존 직업에서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요구되는 기술·지식에서 변화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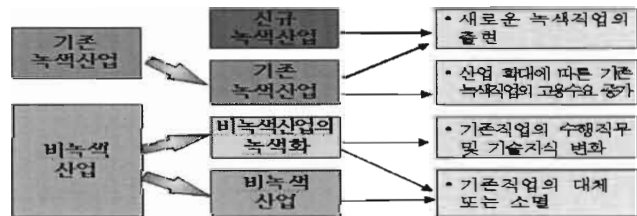
- 건축가 :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설계·시공
- 난방 엔지니어 :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시설 건설
- 환경전문 회계사 : 기업의 환경관련 비용 산정하여 제품별·공정별 배분

○ 녹색성장으로 인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녹색직업도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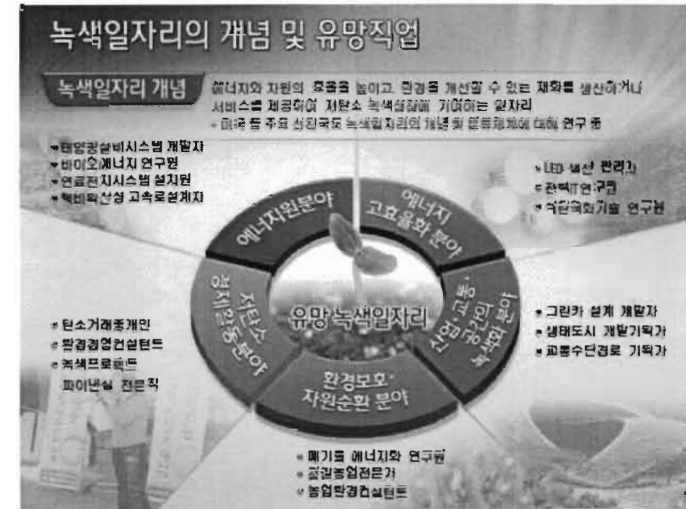
- 수소연료전지 개발자, 태양광 설비시스템 개발자, 지열기사, 탄소거래중개인, 환경감정사, 기후변화담당 전문가 등

○ 반면, 비녹색산업의 규제·퇴출로 인해 대체되거나 소멸되는 직업들도 존재

- 새로운 직업으로 일부 대체 : 화석연료 채굴 → 재생에너지 생산



참고2 유망 녹색일자리



<1> 에너지원 분야

- (태양광설비시스템 개발자) 태양전지 모듈,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연구 및 태양열 생산설비를 개발
- (연료전지시스템 설치원) 업무 및 산업용, 가정용, 자동차용, 마이크로 연료전지 및 이동형 등에 활용 가능한 연료전지의 조립 구성품을 전기, 배관, 용접 등의 작업을 통해 정해진 장소에 설치

<2>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

- (LED 생산 관리자) LED 제품의 생산계획, 관련 부품의 재고 관리, 완성품의 검사 및 시험 등 LED 생산방법 및 공정라인을 개발하고 관리
- (전력 IT 연구원) 전력전기용 전기시스템을 환경친화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정보기술(IT)시스템과 연계하고 그 기능을 개선하려는 연구를 수행
- (석탄액화기술 연구원) 석탄을 고온·고압 상태에서 수소를 첨가 분해시켜 액상(液狀)의 저급 탄화수소인 석유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 및 개발

<3> 산업·공간의 녹색화 분야

- (그린카 설계개발자) 전기나 수소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버스나 승용차, 트럭 등의 차량에 대한 원활한 운전 및 안전을 목적으로 차량구조 및 운용방법을 분석 및 설계
- (생태도시(U-City) 개발기획가) 도시기능과 IT기술의 접목, U-City 내 IT서비스의 제공, 전반적인 U-City 운영 등을 기획하는 등 U-City 건설의 전체적인 방향과 청사진을 설계 및 분석
- (교통수단 경로기획가) 복잡한 도시의 교통수단 배치구조를 분석하여 매연 등의 공해가 비교적 적으면서 연비가 높고 수송량이 많은 경전철, 지하철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, 신호, 정거장 등의 적절한 배치를 기획 및 디자인

<4> 환경보호 - 자원순환 분야

- (기후변화 대응 분석가) 기후 변화에 따르는 기후 및 온도 의 패턴(pattern), 자연재해 등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개발하여 정부기관, 기업체, 비영리단체 등에 제공
- (정밀농업* 전문가) 유기농업의 급격한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안으로 GIS, GPS 등 지리공간 기술을 이용하여 해충탐색 및 살충제 투여, 벼 수량 측정, 위치별 관수 등 농업 생산 및 활동 관리
 - * 정밀농업 : 위성항법장치(GPS), 지리정보시스템(GIS) 등 첨단기술을 통해 농작물을 생산·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수확량 증가 및 환경에 대한 충격 완화

<5> 저탄소 경제활동 지원분야

- (탄소거래중개인)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팔거나 사려고 하는 국가·기업간의 거래를 주선, 탄소배출권의 합리적 가격 책정을 통해 거래 성사 지원
- (환경경영컨설팅) 환경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항을 실제 기업 환경문제와 결부시켜 기업운영의 효율성·발전성 자문
- (녹색프로젝트 파이낸서) 에너지·환경에 직접 관련된 신규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제 시설을 친환경, 저에너지 소비 형태로 전환하는 B/C 분석 등 지원